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관계의 변화: 인천경기지역과 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최진배* · 김태훈**

요약: 이 글은 외환위기 이후 지방은행이 퇴출된 인천경기지역과 대전충남지역에서 지역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국은행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주거래관계를 맺는데 주저하고 있으며, 전국은행의 주거래기업은 비교적 다수의 은행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뚜렷해진 이러한 경향은 주거래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현황에서도 확인되는데, 전국은행의 주거래기업은 비교적 규모가 크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지역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은행은 윌리엄슨형 조직적 불경제에 기인하여 관계적 금융을 취급하기 곤란하다. 지역금융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주요어: 지역금융, 주거래은행, 조직적 불경제, 서민금융기관

1. 서론

지역금융에 대한 관심은 변화해왔다. 지역금융문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던 1980년대 중후반에는 지방은행은 지역금융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금융기관으로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하였으며,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지방은행을 포함한 지역금융기관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다¹⁾.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기도 전에 지방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퇴출(4개 은행)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3개 은행)되어, 지금은 4개만이 독자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금융

기관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서민금융기관도 다수가 퇴출되었다. 지역금융기관의 퇴출은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다²⁾. 최근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각국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은 금융업의 대형화를 촉진하면서 지역금융기관과 지역금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금융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이 지역의 금융제약을 완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심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중심적인 관심사로 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외환위기 이후 지방은행이 퇴출된 인천경기지역과 대전충남지역에서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려 한다. 두 지역의 지방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이 부실화되

* 경성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

** 경성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

자 정부에 의해 강제로 시중은행에 합병되었다는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글은 지역금융시장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은행금융기관을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전국은행과 특정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지방은행으로 구분하며, 전국은행은 다시 전국기타와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으로 세분한다. 기업과 주거래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다른 전국은행과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는 지역에 본점을 두고 영업구역도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서민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기구를 합하여 서민금융기관이라 하는데, 신용협동기구에는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도 있는데, 이 글에서는 지방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을 지역금융기관이라 부르기로 한다.

2. 기존논의의 검토

지역금융에 관한 논의는 지역금융기관이 관계적 금융을 활용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지역금융시장이론에 의하면 지역경제의 금융제약을 완화하는데 지역금융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54년 Losch가 지역간 이자율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표한 이후 관심을 끌게 된 지역금융문제는 Moore & Hill(1982)에 의해 중심과 주변의 문제로 정식화된다. 그들은 지역을 중심지와 주변으로, 금융기관을 금융중심지의 금융기관과 지역의 금융기관으로 그리고 금융차입자를 대기업과 소기업(및 가계)으로 구분하는데, 그들에 의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경우 금융중심지의 금융기관은 지역의 소기업이나 가계에 자금공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후자는 지역금융기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금융시장이 이중구조(two-tier market)로 되어 있다는 이 주장은 지역금융문제가 지역의 소기업과 가계가 당면하는 자금조달상의 문제이며, 이러

한 문제는 지역금융기관에 의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도입되고 있는데, 박원석(1997), 구재운·문호성(2004) 등은 우리나라에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하므로 지역발전을 위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기관이 적극 육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역금융시장이론은 지역금융기관이 어떻게 하여 지역금융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난점을 보완하는 것이 관계적 대출이론이다. 관계적 대출이론(relationship lending)은 정보가 불투명한 소규모기업에 있어 관계적 금융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대은행은 소규모기업금융을 취급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일반적으로 은행-기업관계는 기업의 금융적 전망에 관한 가치 있는 개인적 정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인적 정보의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적 대출은 특히 중시되고 있다. 예컨대 Meyer(1998)는 “상업은행은 소기업에 대한 외부금융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하면서 “관계적 금융이 소기업금융에 그렇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은행이 관계를 통해 소기업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고 그리고 이 정보를 가격과 신용결정을 하는데 이용한다는 것이다”고 말한다. 소기업에 금융을 공급함에 있어 관계적 금융이 중요한 것은 소기업들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한 재무적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³⁾.

Berger et al.(2001)은 관계적 대출 하에서 은행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요 방법으로 기업과의 오랜 접촉, 기업소유주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층위와의 접촉, 금융계에 제공한 기업의 과거의 대출과 서비스에 관한 자료, 기업의 고객과 공급자들과의 접촉, 기업의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은행의 지식(특히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신용도) 등을 제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은행은 보통 지방소재 중소은행을 의미하는데 정보획득에 있어 이러한 이점 때문에 정보가 불투명한 지역소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에 있어 지역소은행의 역할은 중요하다⁴⁾. 이에 반해 대은행은

대규모장벽 때문에 정보가 불투명한 소규모기업에 관계적 대출을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내부감시비용으로 Strahan & Weston(1998)이 주장하듯이 이 비용은 정보적 거리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계적 대출이론은 지역금융시장이론과 유사한 의미와 내용을 가진다⁵⁾.

지역금융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관계적 금융이론을 활용한 예는 많지 않다. 서근우(2003), 김현정(2003), 강종구(2005), 함준호·강종구(2005) 등에서 보듯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은행이 관계적 금융을 활용하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지역 금융문제와 연관시켜 논의하지는 않는다. 최진배(2004)(2005)만이 지방은행이 관계적 금융을 활용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금융기관이 관계적 금융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금융제약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는 지역 금융문제에 관심을 둘 경우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지방은행의 퇴출문제를 염두에 두는 한 대형은행에 의한 중소기업의 지방은행 합병이 관계적 금융에 그리고 중소기업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관심사로 된다. 박경서(2003)과 양원근(2005)이 검토한 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합병은행과 피합병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중 및 두 은행의 규모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지만, 합병으로 인한 대형화는 중소기업대출비중을 감소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로의 편입 및 그에 따른 조직의 복잡성이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

은 일의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합병이 중소기업대출비중에 미친 영향을 보면 박경서(2003)와 양원근(2005) 모두에서 은행규모가 커질수록 또는 대형화될수록 중소기업대출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실은행이 관련된 합병의 경우(박경서, 2003)와 지주회사 설립의 경우(양원근, 2005)에도 중소기업대출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 연구 모두에서 합병이 관계적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합병으로 인한 대형화와 그에 따른 조직적 복잡성 증대로 중소기업대출비중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은 합병과 그로 인한 대형화가 관계적 대출의 활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3. 분석결과

1) 자료의 설명

이 글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소장하고 있는 개별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관계를 분석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이 보증지원을 요청할 때에만 기업정보를 파악한다. 따라서 기업마다 정보의 획득시점이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동 기금이 소장하고 있는 개별 기업자료를 1999년 이전과 그 이후로 구분하였다.

표 1. 표본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구성비 현황(%)

구분		0-4	5-9	10-19	20-49	50-100	100이상	합계
인천 경기 지역	1999년이전	10.0	22.3	28.0	27.0	8.5	4.1	100.0 (2,778)
	1999년이후	20.7	26.2	25.4	19.3	5.5	3.0	100.0(18,722)
	계	19.3	25.7	25.7	20.3	5.9	3.2	100.0(21,500)
인천 경기 지역	1999년이전	17.6	20.0	19.7	24.2	14.3	4.2	100.0 (335)
	1999년이후	27.6	24.3	22.1	17.0	5.5	3.6	100.0 (3,200)
	계	26.6	23.8	21.9	17.7	6.4	3.6	100.0 (3,535)

주: 주거래은행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1999년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이 글이 검토하려는 지역인 인천경기지역과 대전충남지역의 지방은행인 경기은행과 충청은행이 1998년 중에 시중은행으로 합병되었기 때문이다.

표본기업은 모두 종업원 2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며, 1999년 이전의 대전충남지역기업을 제외하고는 종업원 50인 이하인 기업이 전체의 90% 전후의 높은 수준을 점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10인 미만의 기업이 50% 가까이 점유하고 있으며, 19인 이하까지 범위를 넓히면 그 비율은 70-75%에 이른다. 한편 표본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인천경기지역과 대전충남지역 모두 광업에서 서비스업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분석대상기업의 90% 정도가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주로 이들에게 보증지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본을 분석함에 있어 이 글은 주로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한다.

2) 주거래은행 현황

주거래은행 여부는 관계적 금융의 대용변수로 중시되고 있는데, 그 예로 우리는 Carey, Post & Sharpe(1998), Degryse & Cayseele(2000), Jimenez & Saurina(2004), Elsas(2005), 조태근·박광규(2006)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加納(2002)이 지적하듯이 신용도가 잘 알려져 있는 상장기업보다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비상장기업일수록 주거래은행의 심사와 감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에 관한 연구는 개별금융기관의 지역기업 나아가 지역경제에의 기여도를 평가함에 있어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湯野(2002)도 “중소기업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대출시장에서는 지역경제와 융자선에 관한 충분한 정보생산과 감시, 기업지배구조 내지 경영진단·경영지도와 같은 주거래은행의 기능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한다.

주거래은행 여부를 관계적 금융의 대용변수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주거래은행이 加納나 湯野가 지적하듯이 거래기업을 심사할 뿐 아니라 감시하고, 경영

진단, 경영지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필요하면 기업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법제도나 형식으로서 주거래은행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제도가 실시된 적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특정은행과 주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은행도 특정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때 중소기업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가장 많은 자금을 차입하고 가장 중요한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 따른 각종 자금을 지불하거나 수취하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업활동에 따르는 자금거래를 위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은 주거래은행과 장기간, 가장 대규모의 그리고 기업의 활동과 가장 밀접히 연관된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⁶⁾.

한편 은행은 주거래관계를 통해 기업에 관한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집하거나 생산 및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거래계좌를 통해 기업의 신용상태를 매우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주거래은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이러한 정보에는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유통되는 정보뿐 아니라 기업특수한 정보도 포함되게 되므로, 주거래은행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다른 은행이 해당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비해 양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구분되는 의미 있는 정보라 할 수 있다. 물론 은행은, Meyer(1998)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수집하여 축적하게 된 정보를 신규대출을 위한 심사를 하거나 대출금을 갹신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활용하며, 이자율수준의 결정에도 반영한다. 그리고 은행은 주거래기업에게 경영진단과 경영지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주거래은행이 축적하고 있는 기업에 관한 연성정보, 즉 기업특수한 정보는 거의 모든 은행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의 내용은, Berger et al.(2001)이 말하듯이, 지역에 밀착될수록 보다 정확하며 풍부해질 것이다. 물론 그만큼 이러한 정보를 축적하기 위

해 은행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⁷⁾. 이러한 의미에서 전국은행보다는 규모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영업기반(이른 바 틈새시장)을 구축할 필요가 큰 지역금융기관이 지역중소기업과 주거래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거래관계를 장기간 유지해오는 과정에서 은행과 기업은 기업특수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이것은 금융거래를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거래은행관계는 관계적 금융의 대응변수로 의미가 있다.

(1) 인천경기지역

1999년 이전 인천경기지역의 표본기업은 모두 2,778개이며, 이들의 주거래은행으로서 한미은행을 제외한 전국기타(38.0%), 국민은행(17.8%), 기업은행(31.4%)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은행인 경기은행의 비중은 6.5%이며, 한미은행의 주거래기업이 전체에서 점하는 비중은 4.5%이다.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전국기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전국은행의 본점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지 않아 정보적 거리가 크지 않다. 다음으로 기업간 분업이 높은 상태에서 전국은행은 모기업을

통해 이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에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모기업은 지방은행보다 전국은행과 주거래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 모기업의 본점이 서울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들의 규모가 클수록 차입금 규모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행보다는 전국은행과 주거래관계를 맺는 것이 유리하다. 나아가 다양한 은행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인천경기지역의 중소기업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전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호할 수 있다. 먼저 결제의 편의성이다. 거래은행이 모기업의 거래은행과 같을 때 거래에 따른 결제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신의 정보가 모기업을 통해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신용도가 모기업의 신용도에 의해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전국은행과 주거래관계를 맺을 때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1999년 이후의 표본기업은 18,722개인데, 이들의 주거래은행으로서 한미은행을 제외한 전국기타의 비중은 35.4%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2.6% 포인트 하락하였다. 한미은행의 비중을 포함해도 41.7%에 머물러 전체 전국은행의 비중은 0.8% 포인트 하락하였다. 한미은행의 비중은 6.3%로 이전(4.5%)보다는 상승하였다. 그러나 경기은행의 비중이 6.5%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표 2. 인천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주거래 은행 (개, %)

은행명	1999년 이전	1999년 이후
전국기타	1,056 (38.0)	6,619 (35.4)
지방기타	15 (0.5)	58 (0.3)
서민	35 (1.3)	213 (1.1)
국민은행	495 (17.8)	3,611 (19.3)
기업은행	872 (31.4)	7,046 (37.6)
경기은행	180 (6.5)	-
미은행	125 (4.5)	1,175 (6.3)
합계	2,778(100.0)	18,722(100.0)
결측값	2,808	1,114
합계	5,586	19,836

경기은행의 주거래기업으로 되었을 상당수 기업이 한미은행의 주거래기업으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에 반해 기업은행의 비중은 37.6%로 지방은행이 퇴출되기 이전보다 6.2%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국민은행도 17.8%에서 19.3%로 상승하였다. 한편 서민금융기관의 비중은 1.3%에서 1.1%로 오히려 하락하였으며, 다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지방은행의 점유율도 0.5%에서 0.3%로 하락하였다. 결국 지방은행의 공백을 메운 것은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전충남지역

1999년 이전의 표본의 수는 충분하지 않지만 총 339개 기업 중 157개 기업(46.3%)은 전국기타(하나은행 제외)를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다. 하나은행을 전국기타에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53.1%나 된다. 인천경기지역에 비해 전국기타의 비중이 매우 높는데, 이는 기업은행의 비중이 18.5%로 인천경기지역에 비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17.4%로 인천경기지역과 비슷하다. 지방은행인 충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12.1%로 인천경기지역에 비해서는 높다. 하나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의 비중은 6.8%이다.

1999년 이후의 표본 수는 3,200개로 이전보다 크다. 이 중 전국기타(하나은행 제외)를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지역기업은 1,106개로 그 비중은 34.6%인데, 1999년 이전에 비하여 11.7% 포인트나 감소하였다. 하나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의 비중은 22.7%를 기록하고 있다. 1999년 이전 충청은행과 하나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던 지역기업의 합이 18.9%의 비중을 차지하였던 점을 감안해볼 때 하나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의 비중은 3.8% 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기업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의 비중은 22.7%로 이전보다 4.2% 포인트 상승하였다. 그러나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의 비중은 16.8%로 이전보다 0.6% 포인트 감소하였다. 서민금융기관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의 비중은 1999년 이전의 1.2%에서 3.3%로 2.1% 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상호금융의 주거래기업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상호금융과 농협중앙회를 합한 농협의 비중은 7.1%로 1999년 이전보다 3.5% 포인트 상승하였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전국기타를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지역기업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는데, 그 공백을 메운 것이 하나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농협이다.

표 3.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의 주거래 은행 (개, (%))

은행명	1999년 이전	1999년 이후
전국기타	157 (46.3)	1,106 (34.6)
서민	4 (1.2)	104 (3.3)
국민은행	59 (17.4)	537 (16.8)
기업은행	61 (18.0)	726 (22.7)
충청은행	35 (10.3)	-
하나은행	23 (6.8)	727 (22.7)
합계	339(100.0)	3200(100.0)
결측값	460	233
합계	799	3,433

(3) 요약

1999년 이전 인천경기지역과 대전충남지역에서 지방은행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⁸⁾. 이것은 지방은행이 관계적 금융을 활용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이전 대부분의 지방은행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틈새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⁹⁾, 관계적 금융에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외환위기 이후 밝혀진 지방은행의 경영실태에서 잘 드러나는데, 지방은행이 경영위기를 경험하게 된 주요 원인은 그들이 대기업대출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그것이 부실화된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청은행의 경우 1998년 6월 퇴출될 때 총여신의 19.3%에 이르는 6,251억원이 부실화되었는데, 당시의 사정을 이규금·조준희(1998)는 이렇게 말한다. “이는 충청은행 지역연고가 없는 한보그룹, 기아그룹, 해태그룹 등에 대출해준 것이고 또 지역의 여러 건설업체와의 거래가 부실채권이 되면서 충청은행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¹⁰⁾

전국기타는 외환위기 이후 규모가 커지고 수익성도 제고되고 있지만 지역의 중소기업과 주거래관계형성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의 실증분석 결과와도 부합되는데, 전국은행의 경우 조직적 불경제와 내부감시비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고 대기업대출을 선호하게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파악하고 있는 연성정보가 대출의사결정에 용이하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 은행일수록 거래적 금융에 치중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하나은행의 경우는 예외적이다. 충청은행을 합병할 때 조직과 함께 인적자원도 인수하였기 때문에 지역기업에 대한 연성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지역 중소기업과 활발하게 주거래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¹¹⁾. 그러나 전국은행으로서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소속은행으로서 지역과 지역중소기업에 밀착된 경영을 지속하거나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목표가 상충되고, 조직적 불경제와 정보적 거리 및 그에 따른 내부감시비용을 완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두 지역 모두에서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지역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책은행으로서 기업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전국은행이 소홀히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 추세로 볼 때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 기업은행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민영화된 이후에도 꾸준히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행과는 달리 우리나라 선도은행으로서 거래적 금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역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3) 주거래기업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수

다음에는 특정 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의 거래금융기관의 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기업은 강탈문제를 회피하고¹²⁾, 유동성위험을 완화하고 그리고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질에 대한 정보를 공시(disclosure)하기 위해서 다수의 금융기관과 거래하려 한다. 그러나 관계적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사적인 정보는 다른 은행과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지역금융기관이 관계적 금융을 활용한다면 그것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지역기업일수록 거래금융기관의 수가 적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Degryse & Cayseele(2000)과 Jimenez & Saurina(2004)도 은행과 기업 간의 관계의 강도는 기업이 거래하는 은행의 수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¹³⁾.

한편 Ongena & Smith(2000)에 따르면 관계적 은행의 가치를 연구하는 논의들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의 수를 은행간 경쟁의 격렬함을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주거래기업의 거래은행이 많다면 그 은행은 다른 은행과의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말한다면, 지역금융기관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지역기업의 거래은행이 많다면 지역금융기관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업기반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기업이 다수의 은행

으로부터 차입하면 은행에 의한 규율은 약화된다 (Foglia, Laviola & Reedtz, 1998)¹⁴⁾. 이것은 지역기업의 거래은행이 많을수록 지역경제의 효율성제고에 역작용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1) 인천경기지역

1999년 이전 표본기업의 55.9%는 하나의 은행 즉 주거래은행하고만 거래하고 있다. 주거래은행별로 보면 경기은행의 주거래기업은 76.1%가 다른 은행과 거래하지 않으며, 12.2%는 거래은행이 두 개이다. 기업은행의 주거래기업도 59.7%가 다른 은행과 거래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은행이 두 개인 기업은 26.0%이다. 그리고 경기은행과 기업은행은 표준화잔차를 가

지고 평가해 볼 때 주거래기업에 대한 독점도가 높다. 국민은행의 주거래기업은 54.9%가 다른 은행과 거래하지 않으며, 거래은행이 두 개인 기업은 28.7%이다. 한미은행의 주거래기업은 44.0%가 다른 은행과 거래하지 않는데, 이 비율은 전국기타의 주거래기업의 그것(52.7%)보다 낮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볼 때 주거래기업에 대한 독점도가 낮은 편이다. 한편 서민금융기관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80.0%가 1-2개의 은행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른 은행과 거래하지 않는 기업은 11.4%에 불과하다.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하여 은행에 접근하기 곤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은 규모도 작고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도 제한되어 있는 그리고

표 4. 인천경기지역 기업의 거래은행수 교차분석 결과

(a) 1999년 이전 인천경기지역 기업의 거래은행수 교차분석 결과

은행		거래은행수				전체
		0	1	2	3-4	
경기은행	빈도	137	22	13	8	180
	기대빈도	101.68	47.71	20.32	10.29	
	잔차	35.32	-25.71	-7.32	-2.29	
	표준화잔차	3.50	-3.72	-1.62	-0.71	
국민은행	빈도	272	142	55	26	495
	기대빈도	279.62	131.19	55.89	28.31	
	잔차	-7.62	10.81	-0.89	-2.31	
	표준화잔차	-0.46	0.94	-0.12	-0.43	
기업은행	빈도	521	227	82	42	872
	기대빈도	492.58	231.11	98.45	49.87	
	잔차	28.42	-4.11	-16.45	-7.87	
	표준화잔차	1.28	-0.27	-1.66	-1.11	
전국기타	빈도	556	284	145	71	1,056
	기대빈도	596.52	279.87	119.23	60.39	
	잔차	-40.52	4.13	25.77	10.61	
	표준화잔차	-1.66	0.25	2.36	1.37	
한미은행	빈도	55	48	13	9	125
	기대빈도	70.61	33.13	14.11	7.15	
	잔차	-15.61	14.87	-1.11	1.85	
	표준화잔차	-1.86	2.58	-0.30	0.69	
전체		1541	723	308	156	2,728

주) χ^2 값은 57.217이며, p-value는 0.0001이다.

(b) 1999년 이후 인천경기지역 기업의 거래은행수 교차분석 결과

은행		거래은행수	0	1	2	3-4	전체
국민은행	빈도		1,702	1,256	478	175	3,611
	기대빈도		1,526.51	1,229.53	566.11	288.86	
	잔차		175.49	26.47	-88.11	-113.86	
	표준화잔차		4.49	0.75	-3.70	-6.70	
기업은행	빈도		3,318	2,269	966	493	7,046
	기대빈도		2,978.62	2,399.13	1,104.62	563.63	
	잔차		339.38	-130.13	-138.62	-70.63	
	표준화잔차		6.22	-2.66	-4.17	-2.98	
서민	빈도		5	110	75	23	213
	기대빈도		90.04	72.53	33.39	17.04	
	잔차		-85.04	37.47	41.61	5.96	
	표준화잔차		-8.96	4.40	7.20	1.44	
전국기타	빈도		2,386	2,313	1,214	706	6,619
	기대빈도		2,798.11	2,253.74	1,037.68	529.48	
	잔차		-412.11	59.26	176.32	176.52	
	표준화잔차		-7.79	1.25	5.47	7.67	
한미은행	빈도		479	407	193	96	1,175
	기대빈도		496.72	400.08	184.21	93.99	
	잔차		-17.72	6.92	8.79	2.01	
	표준화잔차		-0.79	0.35	0.65	0.21	
전체			7,890	6,355	2,926	1,493	18,664

주) χ^2 값은 457.203이며, p-value는 0.0001이다.

특히 대출이자율도 높은 서민금융기관의 신용에만 의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관은 은행의 그것에 비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이후에는 표본기업의 42.3%만 주거은행하고만 거래하고 있다. 1999년 이전에 비해 그 비율이 13.6% 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주거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의 주거은행기업은 47.1%가 다른 은행과 거래하지 않으며, 34.8%는 두 개의 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주거은행기업도 47.1%는 거래은행이 하나이며 32.2%는 거래은행이 두 개이다. 표준화잔차로 평가해 볼 때 두 은행의 주거은행기업에 대한 독점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미은행의 주거은행기업은 40.8%가 한미은행하고만 거래하고 있으며, 34.6%는 두 개의 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비록 외환위기 이후 하나의 은행하고만 거래하는 기업이 감

소하고 있다고 해도, 자신이 합병한 경기은행의 주거은행기업의 76.1%가 다른 은행과 거래하지 않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미은행의 독점력은 많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기타의 주거은행기업의 거래형태의 변화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전국기타 이외에 거래은행이 없는 기업은 36.0%로 제일 낮으며, 1개 내지 2개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은 53.2%에 이른다. 전국기타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더욱 거래적 금융에 치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국기타의 주거은행기업에 대한 독점도도 한미은행과 마찬가지로 낮은 편이다.

(2) 대전충남지역

1999년 이전의 경우 주거은행기업별 거래은행 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래서 전체 통계

표 5. 대전충남지역 기업의 거래은행수 교차분석 결과

(a) 1999년 이전 대전충남지역 기업의 거래은행수 분할표

은행	거래은행수	0	1	2	3-4	전체
전국기타		81	44	19	13	157
국민은행		30	18	7	4	59
기업은행		44	10	4	3	61
충청은행		21	10	3	1	35
하나은행		11	9	3	0	23
전체		187	91	36	21	335

(b) 1999년 이후 대전충남지역 기업의 거래은행수 교차분석 결과

은행	거래은행수	0	1	2	3-4	전체
국민은행	빈도	254	179	79	25	537
	기대빈도	208.59	185.94	94.65	47.83	537
	잔차	45.41	-6.94	-15.65	-22.83	
	표준화잔차	3.14	-0.51	-1.61	-3.30	
기업은행	빈도	279	236	141	70	726
	기대빈도	282.01	251.38	127.96	64.66	726
	잔차	-3.01	-15.38	13.04	5.34	
	표준화잔차	-0.18	-0.97	1.15	0.66	
서민	빈도	5	43	43	13	104
	기대빈도	40.40	36.01	18.33	9.26	104
	잔차	-35.40	6.99	24.67	3.74	
	표준화잔차	-5.57	1.16	5.76	1.23	
전국기타	빈도	368	398	202	138	1,106
	기대빈도	429.61	382.95	194.93	98.50	1,106
	잔차	-61.61	15.05	7.07	39.50	
	표준화잔차	-2.97	0.77	0.51	3.98	
하나은행	빈도	337	252	99	39	727
	기대빈도	282.39	251.72	128.13	64.75	727
	잔차	54.61	0.28	-29.13	-25.75	
	표준화잔차	3.25	0.02	-2.57	-3.20	
전체		1243	1108	564	285	3,200

주) χ^2 값은 146.396이며, p-value는 0.0001이다.

량만 살펴보면 주거래은행 이외에 거래은행이 없는 기업이 187개 기업으로 표본기업 전체의 55.8%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 거래은행이 두 개인 기업 91개를 합하면 그 비율은 83.0%에 이른다. 외환위기 이전 대

전충남지역 중소기업은 매우 한정된 수의 은행하고만 거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이후에는 사정이 크게 변하고 있다. 즉 표본기업 3,200개 가운데 주거래은행하고만 거래

하는 기업은 38.8%에 불과하다. 1999년 이전의 55.8%에 비해 17.0% 포인트나 감소하였다. 여기에 거래은행이 두 개인 기업 1,108개를 합해도 그 비율은 73.5%에 머무르고 있다. 주거래은행별로 살펴보면 주거래은행하고만 거래하는 기업은 국민은행 주거래기업에서 47.3%로 제일 높으며, 하나은행 주거래기업의 경우에도 46.4%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준화잔차로 볼 때 두 은행의 주거래기업에 대한 독점도는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주거래기업에 대한 금융거래의 독점도는 서민금융기관과 농협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다(각각 4.8%와 26.9%). 전국기타의 경우에도 33.3%로 낮은 편인데, 거래적 금융에 중점을 두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경우 인천경기지역 기업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천경기지역의 기업은행 주거래기업은 47.1%가 거래은행이 기업은행 하나로 높은 수준이며, 주거래기업에 대한 독점도도 높다. 그러나 대전충남지역에서는 기업은행의 주거래기업과의 밀착도도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대신에 이 지역에서는 하나은행이 충청은행을 대신하여 지역기업에 밀착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인천경기지역과 대비되는데 한미은행의 주거래기업에 대한 독점도는 평균보다 낮다.

(3) 요약

은행의 주거래기업에 대한 독점도는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즉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하나의 은행하고만 거래하는 기업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55.9%에서 42.3%로, 대전충남지역의 경우에는 55.8%에서 38.8%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하나는 행은 대전충남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독점력을 보여주고 있다. 주거래은행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미은행과는 매우 대비되는 현상이다. 이 경우에도 우리는 한미은행과는 달리 지역경제에 밀착하려는 하나은행의 경영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9년 이후 은행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에도 불

구하고 주거래은행의 독점력이 저하된 것은 심화되고 있는 은행간 경쟁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금융시장이 수요자시장으로 변화하였지만 대기업의 금융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¹⁵⁾. 이러한 경향은 정부가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측에서도 다수의 은행과 거래할 유인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자신과 거래하던 은행이 퇴출될 경우 유동성 위험에 처하기 쉽다. 따라서 기업은 복수의 은행과 거래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되는데, 두 지역 모두 지방은행의 퇴출이라는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¹⁶⁾. 뿐만 아니라 기업은 다수의 은행과 거래함으로써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지방은행이 퇴출됨으로써 특별히 애정을 가질만한 은행이 없게 되었다는 점도 이 지역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도록 했을 수 있다. 금융시장의 변화 그리고 기업측의 경험 어느 쪽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물론 상호작용하였을 수도 있다¹⁷⁾.

1999년 이후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거래은행이 하나인 비율은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낮은 편이다. Jimenez & Saurina(2004)에 따르면 스페인 기업의 약 50%는 하나의 은행과만 거래하고 있으며, 2개의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은 약 20% 그리고 3개의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은 약 10%이다. 관계적 금융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은행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주거래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현황

주거래은행 여부를 관계적 금융의 대용변수로 사용할 때 중시되는 점은 규모가 보다 작은 기업이 지

역금융기관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는 정도이다. 중소기업으로서 재무투명성에 차이가 없다면 규모가 작을수록 금융기관 신용에 접근하기가 곤란할 것이므로 지역금융기관이 지역에 밀착된 경영을 하면서 관계적 금융을 활용한다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지역금융기관을 주거래은행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서 주거래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인천경기지역

1999년 이전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전국기타는 종업원 101인 이상인 기업에서만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을 보이고 있을 뿐 여타 규모의 기업에서는 평균적인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행은 종업원 10인 이상인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전국기타와 기업은행은 주거래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을 선호하고 있는데, 전국기타의 경우 거래적 금융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한미은행과 국민은행은 주거래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는데, 한미은행은 종업원 19인 이하인 기업에서 그리고 국민은행은 9인 이하인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는 달리 경기은행은 종업원 20인 이상인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인천경기지역 주거래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현황

(a) 1999년 이전 인천경기지역 주거래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교차분석 결과

은행		거래은행수	0~4	5~9	10~19	20~49	50~100	101이상	전체
		빈도	기대빈도	잔차	표준화잔차	빈도	기대빈도	잔차	표준화잔차
경기은행	빈도	9	28	45	61	27	10	180	
	기대빈도	17.55	40.25	50.34	48.83	15.57	7.46	180	
	잔차	-8.55	-12.25	-5.34	12.17	11.43	2.54		
	표준화잔차	-2.04	-1.93	-0.75	1.74	2.90	0.93		
국민은행	빈도	66	122	143	137	23	4	495	
	기대빈도	48.27	110.69	138.45	134.27	42.82	20.50	495	
	잔차	17.73	11.31	4.55	2.73	-19.82	-16.50		
	표준화잔차	2.55	1.08	0.39	0.24	-3.03	-3.64		
기업은행	빈도	70	178	252	240	89	43	872	
	기대빈도	85.03	194.99	243.89	236.54	75.44	36.12	872	
	잔차	-15.03	-16.99	8.11	3.46	13.56	6.88		
	표준화잔차	-1.63	-1.22	0.52	0.22	1.56	1.14		
전국기타	빈도	105	241	280	285	90	55	1,056	
	기대빈도	102.97	236.13	295.35	286.45	91.35	43.74	1,056	
	잔차	2.03	4.87	-15.35	-1.45	-1.35	11.26		
	표준화잔차	0.20	0.32	-0.89	-0.09	-0.14	1.70		
한미은행	빈도	16	41	43	17	7	1	125	
	기대빈도	12.19	27.95	34.96	33.91	10.81	5.18	125	
	잔차	3.81	13.05	8.04	-16.91	-3.81		-4.18	
	표준화잔차	1.09	2.47	1.36	-2.90	-1.16	-1.84		
전체		266 (9.8)	610 (22.4)	763 (28.0)	740 (27.1)	236 (8.7)	113 (4.1)	2,728 (100.0)	

주: 1) χ^2 값은 85.436이며, p-value는 0.0001이다. 2) 서민금융기관과 경기은행 이외의 지방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은 제외함. 3) 전체의 () 내는 구성비(%)임

(b) 1999년 이후 인천경기지역 주거래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교차분석 결과

은행		거래은행수						전체
		0~4	5~9	10~19	20~49	50~100	101이상	
국민은행	빈도	917	1009	917	589	134	45	3,611
	기대빈도	746.81	943.96	916.87	697.09	196.57	109.70	
	잔차	170.19	65.04	0.13	-108.09	-62.57	-64.70	
	표준화잔차	6.23	2.12	0.00	-4.09	-4.46	-6.18	
기업은행	빈도	1335	1877	1803	1419	397	215	7,046
	기대빈도	1457.22	1841.91	1789.06	1360.20	383.56	214.05	
	잔차	-122.22	35.09	13.94	58.80	13.44	0.95	
	표준화잔차	-3.20	0.82	0.33	1.59	0.69	0.06	
서민	빈도	84	71	36	21	1	0	213
	기대빈도	44.05	55.68	54.08	41.12	11.59	6.47	
	잔차	39.95	15.32	-18.08	-20.12	-10.59	-6.47	
	표준화잔차	6.02	2.05	-2.46	-3.14	-3.11	-2.54	
전국기타	빈도	1307	1638	1656	1324	417	277	6,619
	기대빈도	1368.91	1730.29	1680.64	1277.77	360.31	201.08	
	잔차	-61.91	-92.29	-24.64	46.23	56.69	75.92	
	표준화잔차	-1.67	-2.22	-0.60	1.29	2.99	5.35	
한미은행	빈도	217	284	327	250	67	30	1,175
	기대빈도	243.01	307.16	298.35	226.83	63.96	35.70	
	잔차	-26.01	-23.16	28.65	23.17	3.04	-5.70	
	표준화잔차	-1.67	-1.32	1.66	1.54	0.38	-0.95	
전체		3,860 (20.7)	4,879 (26.1)	4,739 (25.4)	3,603 (19.3)	1,016 (5.4)	567 (3.0)	18,664 (100.0)

주: 1) χ^2 값은 262,670이며, p-value는 0.0001이다. 2) 지방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은 제외함. 3) 전체의 () 내는 구성비(%)임.

1999년 이후 각 은행은 자신의 성향을 비교적 뚜렷이 하고 있다. 먼저 전국기타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인 이상인 기업에서 상대적인 비중이 높다. 국민은행은 1999년 이후의 표본에서도 소규모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서민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그리고 기업은행은 20-49인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은행을 합병한 한미은행은 이전과는 달리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의 비중이 감소한 대신 10-50인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한미은행의 주거래기업 비중이 합병 이전의 한미은행과 경기은행을 합한 주거래기업의 비중보다 줄어들었다는 이전의 결과까지도 감안할 때, 합병 후 한미은행은 종업원 20-49인

사이의 기업과의 주거래관계는 지속 내지는 확대한 반면 20인 미만의 기업과의 거래는 줄어나간 것으로 보인다.

(2) 대전충남지역

1999년 이전의 표본기업의 은행별 종업원 규모별 현황은 표본이 지나치게 작아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이에 전체적인 분포만 살펴보기로 한다. 표본기업은 모두 335개 기업이며, 이 중 종업원 101인 이상인 기업은 4.2%이며, 50-100인 사이의 기업은 14.3%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49인 규모가 비교적 많은 가운데 나머지 규모는 17% 정도로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다.

1999년 이후의 표본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보면 101인 이상 기업의 비중은 3.6%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1999년 이전의 표본에 비해 50-100인 기업의 비중은 크게 감소한 대신 19인 이하의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4인 이하인 기업과 5-9

표 7. 대전충남지역 주거래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현황

(a) 1999년 이전 대전충남지역 기업의 종업원 규모 분할표

은행	거래은행수	0~4	5~9	10~19	20~49	50~100	101이상	전체
	전국기타		27	23	31	42	25	9
국민은행		16	13	11	12	5	2	59
기업은행		8	12	9	17	13	2	61
충청은행		5	11	8	5	5	1	35
하나은행		3	8	7	5	0	0	23
전체		59 (17.6)	67 (20.0)	66 (19.7)	81 (24.2)	48 (14.3)	14 (4.2)	335 (100.0)

(b) 1999년 이후 대전충남지역 주거래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교차분석 결과

은행	거래은행수	0~4	5~9	10~19	20~49	50~100	101이상	전체
	전국기타	빈도	289	234	240	210	79	54
기대빈도		304.84	268.21	244.36	187.67	61.18	39.75	
잔차		-15.84	-34.21	-4.36	22.33	17.82	14.25	
표준화잔차		-0.91	-2.09	-0.28	1.63	2.28	2.26	
서민	빈도	59	17	17	9	2	0	104
	기대빈도	28.67	25.22	22.98	17.65	5.75	3.74	
	잔차	30.34	-8.22	-5.98	-8.65	-3.75	-3.74	
	표준화잔차	5.67	-1.64	-1.25	-2.06	-1.56	-1.93	
국민은행	빈도	189	147	97	83	15	6	537
	기대빈도	148.01	130.22	118.64	91.12	29.70	19.30	
	잔차	40.99	16.78	-21.64	-8.12	-14.70	-13.30	
	표준화잔차	3.37	1.47	-1.99	-0.85	-2.70	-3.03	
기업은행	빈도	135	170	188	146	50	37	726
	기대빈도	200.10	176.06	160.40	123.19	40.16	26.09	
	잔차	-65.10	-6.06	27.60	22.81	9.84	10.91	
	표준화잔차	-4.60	-0.46	2.18	2.05	1.55	2.14	
하나은행	빈도	210	208	165	95	31	18	727
	기대빈도	200.38	176.30	160.62	123.36	40.21	26.13	
	잔차	9.62	31.70	4.38	-28.36	-9.21	-8.13	
	표준화잔차	0.68	2.39	0.35	-2.55	-1.45	-1.59	
전체		882 (27.6)	776 (24.3)	707 (22.1)	543 (17.0)	177 (5.5)	115 (3.6)	3,200 (100.0)

주: 1) χ^2 값은 154.386이며, p-value는 0.0001이다. 2) 서민의 101인 이상 기대빈도가 5미만의 값을 가지므로 주변의 셀(cell)과 통합하여 기대도수가 5 이상이 되도록 예이츠의 연속성 수정을 하고 검정을 하여야하나(성삼경 등, 1993), 전체적으로 해석상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합하지 않고 기존의 χ^2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3) 전체의 () 내는 구성비(%)임.

인 사이 기업의 비중이 이전의 17.6%, 20.0%에서 27.6%, 24.3%로 크게 증가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대상기업이 소기업 중심으로 변화되었음을 함의한다.

은행별 주거래기업의 규모별 현황을 보면 전국기타와 기업은행은 규모가 큰 중소기업과 주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서민금융기관과 국민은행은 규모가 작은 기업과 비교적 많은 주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인천경기지역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점은 하나은행의 주거래기업의 규모이다. 인천경기지역에서 한미은행은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과 주거래관계를 맺고 있는데 비해, 대전충청지역에서 하나은행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과 주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5-9인 규모 기업의 상대적인 비중이 특히 높다.

(3) 요약

전국기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과 주거래관계를 맺는데 주저하고 있으며, 전국기타의 주거래기업은 비교적 다수의 은행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뚜렷해진 이러한 경향은 주거래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현황에서도 확인되는데, 전국기타의 주거래기업은 비교적 규모가 크다.

충청은행을 인수한 하나은행은 자신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지역기업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이들에 대한 금융공급에 있어 높은 독점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역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은 주거래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소기업을 중시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전국은행으로서 하나은행이 관계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전의 대전충남본부를 독립시켜 운영하는 등 지방은행인 충청은행을 대신하여 지역밀착경영을 시도하고 있는 점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1999년 이후를 보면 서민금융기관은 두 지역 모두에서 4인 이하인 기업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뒤에서 보듯이 서민금융기관 자

체가 영세하며, 기업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에 아직은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4. 서민금융기관의 기업금융 취급 현황

이상에서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전국기타가 관계적 금융보다는 거래적 금융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다소 예외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전충남지역에서 하나은행도 지역밀착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은행이 퇴출된 두 지역의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은행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역금융문제를 완화해주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대규모 은행조직이 관계적 대출 서비스를 대규모기업에 대한 거래적 대출 서비스 및 여타 도매금융적 자본시장 서비스와 함께 공급할 경우 윌리엄슨형 조직적 불경제(Williamson-type organizational diseconomies)에 당면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되면 전국은행은 자본시장 서비스에 더욱 치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것은 전국은행이 지역경제에 밀착된 경영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두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에 이하에서는 이들의 기업금융 취급현황 및 이와 관련된 사정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상호금융

신용협동기구는 규모가 영세하고 기업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에는 아직은 전문성과 경험부족에 따른 노우하우가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는 기업금융

표 8. 상호금융의 기업대출금 비중 현황(%)

	인천경기지역			대전충남지역		
	인천	경기	계	대전	충남	계
2005	1.4	3.1	2.3	3.4	2.6	2.4
2006	3.7	3.7	3.7	5.2	3.4	3.8

주: 기업대출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대한 대출의 합계.
 자료: 농협협동조합중앙회.

표 9. 상호금융의 총자산규모별 현황(2006년말 현재, 개)

구분	5백억 원이하	1천억 원이하	2천억원 이하	3천억원 이하	4천억원 이하	5천억원 이하	6천억원 이하	7천억원 이하	8천억원 이상	8천억원	계	자산평균
인천	4	5	1	4	1	2	1	1	0	2	21	2,828
경기	9	38	43	23	17	10	11	4	1	5	161	2,475
인천경기	13	43	44	27	18	12	12	5	1	7	182	2,515
대전	0	2	4	2	2	2	1	0	0	1	14	3,080
충남	40	61	40	11	1	1	0	0	1	0	155	1,012
대전충남	40	63	44	13	3	3	1	0	1	1	169	1,183

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합계.
 자료: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취급실적이 매우 미미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더욱 분명하다. 그렇지만 상호금융의 경우에서 엿볼 수 있듯이 신용협동기구는 1999년 이후 지역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있으며, 총대출에서 기업금융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비중은 2005년의 2.3%에서 2006년에는 3.7%로 높아졌으며, 대전충남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2.4%에서 3.8%로 상승하였다.

아직까지는 기업금융의 비중이 매우 미약하지만 상호금융의 규모는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 비해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총 182개 점포 중에서 30.2%를 차지하는 55개가 자산 3천억원 이상이며, 대전충남지역의 경우에는 총 169개 중 5%를 점하는 9개가 자산 3천억원 이상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도시지역인 인천과 대전지역의 경우 자산 3천억

원 이상인 점포가 각각 42.8%와 42.9%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농협협동조합중앙회는 다른 신용협동기구의 중앙조직에 비해 중앙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금융전문가의 육성 등 상호금융이 기업금융을 취급하기 위한 각종 지원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금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상호금융은 승자의 재앙(winner's curse)에 직면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의 기업금융 취급능력을 제고하여 지역 금융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기업금융을 취급할 때 보증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¹⁸⁾.

2)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은 규모도 크고 기업금융의 취급에도 적극적이다. 인천경기지역에는 많은 수의 상호저축은행이 영업하고 있다. 즉 2006년말 현재 23개의 상호

표 10. 인천경기지역 상호저축은행 자산규모별 현황(2006년말 현재)

자산(억원)	~2천	2~3천	3~4천	4~5천	5~6천	6~7천	7~8천	1조5천이상	합계	자산평균
개수(개)	10	4	3	1	1	1	1	2	23	4,336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표 11. 대전충남지역 상호저축은행의 규모별 현황(2006년말 현재)

자산(억원)	~1천	1~2천	2~3천	8천이상	합계	자산평균
개수(개)	1	3	1	1	6	2,644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저축은행이 있으며, 평균자산규모도 4,3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2천억원 이하인 상호저축은행이 10개로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기업금융을 취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밀착의 이점을 발휘할 수 있다. 대전충남지역에는 2006년말 현재 총 6개의 상

호저축은행이 있으며, 이들의 평균자산규모는 2,6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하나의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이 8,956억원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평균 자산규모는 1,382억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의 규모를 상회한다.

인천경기지역 상호저축은행은 비교적 일찍부터 기

표 12. 인천경기지역 상호저축은행 용도별 대출금 현황(백만원, %, 연말기준)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100.0 1,894,039	100.0 1,693,556	100.0 2,683,068	100.0 3,333,180	100.0 4,321,031	100.0 5,348,944	100.0 6,638,050	100.0 8,637,080
기업자금	62.9	63.4	56.0	59.6	61.6	66.2	76.5	84.6
가계자금	31.4	31.4	31.6	34.1	33.4	29.6	21.0	13.5
공공 및 기타	5.7	5.2	12.4	6.3	5.1	4.1	2.5	1.9

주: 합계의 아래 숫자는 금액(단위 백만원)임.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표 13. 대전충남지역 상호저축은행 용도별 대출금 현황(% , 연말기준)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100.0 258,297	100.0 267,467	100.0 371,199	100.0 514,586	100.0 686,351	100.0 970,326	100.0 1,246,704	100.0 1,390,111
기업자금	26.0	25.3	42.8	40.0	40.4	57.2	68.4	74.7
가계자금	63.7	67.4	50.0	59.0	58.9	41.3	30.4	24.7
공공 및 기타	10.4	7.3	7.2	1.0	0.7	1.5	1.2	0.5

주: 합계의 아래 숫자는 금액(단위 백만원)임.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표 14. 대전충남지역의 금융기관별 기업금융 현황(백만원, 연말기준)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예금은행	6,547,646	7,389,518	8,586,593	10,735,437	12,447,215	12,070,047	12,825,386	14,825,720
상호저축	67,036	67,762	159,041	205,969	277,374	554,896	852,374	1,038,931
합계	6,614,682 (1.0)	7,457,280 (0.9)	8,745,634 (1.8)	10,941,406 (1.9)	12,724,589 (2.2)	12,624,943 (4.4)	13,677,760 (6.2)	15,864,651 (6.5)

주: 합계의 ()내는 상호저축은행의 비중.
 자료: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표 15. 인천경기지역의 금융기관별 기업금융 현황(백만원, 연말기준)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예금은행	24,416,445	29,378,329	33,120,200	42,449,757	52,266,731	56,285,310	60,561,915	72,977,692
상호저축	1,190,662	1,073,826	1,503,593	1,988,231	2,660,453	3,541,984	5,077,548	7,307,329
합계	25,607,107 (4.6)	30,452,155 (3.5)	34,623,793 (4.3)	44,437,988 (4.5)	54,927,184 (4.8)	59,827,294 (5.9)	65,639,463 (7.7)	80,285,021 (9.1)

주: 합계의 ()내는 상호저축은행의 비중.
 자료: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업금융을 취급하고 있으며, 2006년말 현재 총대출금의 84.6%를 기업자금으로 대출하고 있다. 이 비중은 1999년말에 비해 21.7%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대전충남지역 상호저축은행 대출금의 용도별 현황을 보면 2006년말 현재 총대출금의 74.7%를 기업자금으로 대출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기업자금대출은 2001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쳐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0년까지만 해도 총대출금의 70% 가까운 자금을 가계자금으로 대출하였다.

이렇게 상호저축은행의 기업자금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두 지역의 기업자금대출금(예금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합)에서 접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비율도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즉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1999년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비중은 1.0%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6.5%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그것은 같은 기간 4.6%에서 9.1%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의 기업대출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대부분이 부동산관련자금으로 대출되고 있

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상호저축은행이 고수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예수금이자율은 금융기관 중에서 제일 높다. 이러한 사정은 상호저축은행이 기업자금을 둘러싸고 은행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며, 은행신용에 접근하기 곤란한 기업이 일반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함의한다. 상호저축은행이 기업의 안정적인 거래금융기관이 될 수 있으려면 스스로가 합리적인 대출자라는 평판을 쌓아야 할 것이다⁹⁾.

지역중소기업금융문제를 지역금융의 문제로 인식할 경우 지역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현재 신용협동기구는 자금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계금융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은행이 가계금융시장에 적극 진입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도가 낮은 가계가 주된 차입자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자금운용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서민금융기관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큰 상호저축

은행과 중앙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호 금융은 기업금융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입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신규시장에 진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지만 기업금융시장에 이들의 진입은 장기적으로 은행의존적인 기업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그리고 지역금융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그리고 나아가 지역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기업은 자신과 거래하던 은행이 퇴출될 경우 유동성 위험에 처하기 쉽고, 자신의 정보를 새로운 은행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기업은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나아가 다수의 은행과 거래함으로써 기업은 강탈문제를 회피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1999년 이후 금융기관의 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은행의 수가 증가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나아가 다수은행과 거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리려는 기업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요자시장으로 된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은행간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기업은 유리한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은행과 거래 관계를 늘려 나갈 수 있다.

다른 한편 인천경기지역과 대전충남지역 기업은 경기은행과 충청은행이 퇴출되면서 특별히 의존할 수 있는 또는 애정이 느껴지는 은행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방은행을 합병한 은행이 거래적 금융을 중시하는 전국은행이라는 점도 지역기업이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로 살펴보면 경기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던 지역기업의 76% 이상은 경기은행하고만 그리고 충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던 기업의 60.0%는 충청은행하고만 거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주거래은행의 상실감은 매우 컸을 것인데, 퇴출 당시 경기침체를 맞이하여 긴축정책이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실감의 강도는 증폭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관계적 금융을 통해 재무투명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고 그리고 은행이 기업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여 자금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은 주거래관계를 일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본에 따르면 1999년 이후에도 인천경기지역에는 5.6%의 기업이 그리고 대전충남지역에는 6.8%의 기업이 주거래은행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²⁰⁾. 서민금융기관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기업금융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점하는 비중은 10% 전후로 매우 낮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관련대출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금융기관이 기업금융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게 될 때 서민금융기관은 지역경제의 금융 제약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주

- 1)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로는 최진배(2002) 참조. 한편 대부분의 논의는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최진배(2002)(2003)는 지역금융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서민금융기관의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2) 정형권·강종구(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 은행 수는 1997년 26개(시중은행 16개, 지방은행 10개)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에는 13개(시중은행 7개, 지방은행

- 6개)로 줄어들었다. 한편 박형근 등(2006)은 대형화를 초래한 요인으로 은행간 합병, 겸업화, 금융그룹화 등을 들고 있다.
- 3) 이러한 사정은 소기업의 다음과 같은 특징에서 연유한다. 먼저 소규모이기 때문에 신용평가기관의 감시대상이 아니며 자본시장에의 접근이 곤란하다. 이것은 소기업의 경우 이들과 잠재적 투자자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대부분 설립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생기업이다. 이는 경쟁력, 신뢰성 그리고 투자기회의 종류 등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국민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하는 정도는 금융제도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Petersen & Rajan(1994) 참조.
 - 4) Peek & Rosengren(1998)도 소기업 대출은 특수한 지역적 조건과 기업특수한 특성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요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소규모기업 대출은 지역정보집약적이며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소규모금융기관에 경쟁상의 이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Petersen & Rajan(1994), Goldberg & White(1998), Meyer(1998)도 참조.
 - 5) Porteous(1995), Dow(1990)에서 보듯이 지역금융시장이론에서도 정보적 거리를 중시한다.
 - 6) 중소기업 특히 다른 기업과 긴밀한 분업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이들은 보통 대기업의 하청기업이다)의 경우 모기업의 요청에 따라 다른 은행과 거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보통 단순히 자금결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거래로 제한된다. 물론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은행과 거래하기 시작하거나 거리가 가깝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주거래은행을 옮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흔한 경우는 아니다. 무엇보다 주거래은행을 옮기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즉 담보를 새로이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며, 거래처에 자신의 거래은행 변경 사실을 일일이 통보하고, 결제계좌도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은행에 자신의 연성정보를 새롭게 제공해야 하고, 새로운 은행의 자신에 대한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업은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 하지 않는다.
 - 7) 이와 함께 은행은 관계적 금융을 활용하기 위해 보조금과 감시비용과 같은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Boot(2000)가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은 핵심예금(core deposits)”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8) 예컨대 최진배(2004)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경우 지방은행은 20% 이상의 중소기업과 주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 9) 당시의 논의에 대한 검토로는 최진배(2002) 참조.
 - 10) 우리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 경남은행에서도 동일한 사정이 확인되는데 경남은행의 부실채권 누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은 대기업 또는 재벌그룹이다. 부산은행의 경우에도 대기업여신의 부실이 부산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었다. 전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최진배(2002)를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는 부산은행(2003)을 참조.
 - 11) 하나은행의 지점 수는 2007년 8월1일 현재 702개이며 대전충남지역에는 13.7%인 96개가 있다. 이는 서울지역(353개)과 경기지역(118개)을 제외하고는 제일 많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과거 충청은행 조직이 중심이 된 대전충남본부를 독립된 사업부로 유지 및 관리하면서 인사와 예산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독립시키고 있다. 이는 대전충남본부를 중심으로 과거 충청은행이 그랬던 것처럼 지역에 밀착된 경영을 지속 및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 12) 이에 대한 설명은 Sharp(1990), Rajan(1992) 등을 참조. 그러나 복수의 은행관계는 신용의 이용가능성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강탈문제를 완화하면서 신용의 이용가능성도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신용공급 중단조항이 있는 장기신용한도거래가 제안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Boot(2000) 참조.
 - 13) Degryse & Cayseele(2000)는 이와 함께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구입하는 상이한 금융서비스의 개수도 관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 14) 여기서 규율이란 대출경신 거부, 파산 시 고발 등을 의미한다.
 - 15)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신용도는 높지 않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이 일단 보증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은행의 신용위험은 크게 높지 않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은행간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6) 이 때 우리는 이들 지역에서 지방은행이 퇴출될 때 경기가 침체되어있는 상황에서 긴축정책이 강도 높게 실시

- 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17) 이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이 퇴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분석도 요청된다.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 18)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최진배(2006) 참조.
 - 19)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최진배(2006) 참조.
 - 20) <표 2>와 <표 3>의 결측 값은 주거래은행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강종구, 2005,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약화원인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계간 경제분석 11(3), pp.1-32.

구재운 · 문호성, 2004, “한국의 지역금융시장,” 한국은행, 계간 경제분석 10(1), pp.1-25.

김현정, 2003, “외환위기 이후 은행-기업 관계의 변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 130, pp.1-43.

박경서, 2003, “은행합병이 기업여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2년 5개 학회 춘계공동학술연구발표회 (<http://www.dure.net/>)

박원석, 1997, 한국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형근 · 이상진 · 김보성, 2006, 금융환경 변화와 은행의 금융중개 역할, 한국은행 조사국.

서근우, 2003, 중소기업 금융의 현황과 과제-관계형 금융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부산은행, 2003, 은행경영현황.

성삼경 · 최종후 · 이재창, 1993, “경영학 연구논문의 통계적 오류,”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22(2), pp.163-198.

양원근, 2005, “은행대형화가 중소기업여신에 미친 영향,” 중소기업은행, 기은조사 가을호, pp.68-82.

이규금 · 조준희, 1998, “지역금융산업의 발전방안-대전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산경연구 14, pp.85-101.

정형권 · 강종구, 2006, “은행 대형화 및 시장집중도 상승이 은행 효율성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working paper.

조태근 · 박광규, 2006, “중소기업대출의 담보설정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신용리스크와 관계금융을 중심으

로, “5개 학회 공동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

최진배, 2002, “지방금융활성화 대책과 지역금융: 하나의 비판적 고찰,”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10(2), pp.115-140.

최진배, 2003, “부산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2), pp.377-402.

최진배, 2004, “기업규모와 재무투명성이 주거래은행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역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2), pp.63-86.

최진배, 2005, “기업의 재무적 특성 및 비재무적 특성이 주거래은행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 동남경제권 부품 · 소재생산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2), pp.247-266.

최진배, 2006, “지역경제의 금융계약과 지방은행 - 부산지역 지방은행에 대한 기대와 과제,”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14(4), pp.227-255.

함준호 · 강종구, 2005, “중소기업금융과 은행의 역할 : 혁신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계간 경제분석 11(3), pp.87-119.

加納正二, 2002, “京都のメインバンク關係 1980-2000,” 湯野勉 編著, 京都地域金融, 日本評論社.

湯野勉, 2002, “京都の地域金融 · 序論,” 湯野勉, 京都の地域金融-理論 · 歴史 · 實證, 日本評論社, pp.1-21.

Berger, A. N., Klapper, L. F., Udell, G. F., 2001, “The ability of banks to lend to informationally opaque small busines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5, pp.2127-2167.

Boot, A. W. A., 2000, “Relationship banking: what do we know?”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9, pp.7-25.

Carey, M., Post, M., and Sharpe, S. A., 1998, “Does corporate lending by banks and finance companies differ? Evidence on specialization in private debt contracting,” *Journal of Finance* LIII(3), pp.845-878.

Degryse, H. and Cayseele, P. V., 2000, “Relationship lending within a bank-based system: evidence from European small business data,”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9, pp.90-109.

Dow S. C., 1990, *Financial Markets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Canadian Experience,*

- Avebury.
- Elsas, R., 2005, "Empirical determinants of relationship banking,"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14, pp.32-57.
- Goldberg, L., White, L. J., 1998, "De novo banks and lending to small business: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2, pp.851-867.
- Jimenez, G., Saurina, J., 2004, "Collateral, type of lender and relationship banking as determinants of credit risk,"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8, pp.2191-2212.
- Foglia, F., Laviola, S. and Reedtz, P. M., 1998, "Multiple banking relationships and the fragility of corporate borrower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22, pp.1441-1456.
- Meyer, L. H., 1998, "The present and future roles of banks in small business financ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2, pp.1109-1116.
- Moore C. L., Hill, J. M., 1982, "Interregional arbitrage and the supply of loanable fund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2, pp.499-512.
- Ongena, S. and Smith, D. C., 2000, "What determines the number of bank relationship? cross-country evidence,"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9, pp.26-56.
- Peek, J., Rosengren, E. S., 1998, "Bank consolidation and small business lending: It's not just bank size that matter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2, pp.799-819.
- Petersen, M. A., Rajan, R. G., 1994, "The benefits of lending relationships: evidence from small business data," *Journal of Finance* 49, pp.3-37.
- Porteous, D. J., 1995, *The Geography of Finance: Spatial Dimensions of Intermediary Behavior*, Avebury.
- Rajan, R. G., 1992, "Insiders and outsiders: the choice between informed and arm's-length debt," *Journal of Finance* 47, pp.1367-1400.
- Sharp, S., 1990, "Asymmetric information, bank lending and implicit contracts: a stylized model of customer relationship," *Journal of Finance* 45, pp.1069-1087.
- Strahan, P. and Weston, J., 1998, Small business lending and the changing structure of the banking industry,"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2, pp. 821-845.
- 교신: 최진배, 608-736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314-79
경성대학교 상경대학 디지털 비즈니스학부, Tel: 051-620-4412, Fax: 051-620-4407, e-mail: jbchoi@ks.ac.kr
- Correspondence: Choi, Jin Bae, Professor, Kyungsung University, Department of Digital Business, Tel: 051-620-4412, Fax: 051-620-4407, e-mail: jbchoi@ks.ac.kr

최초투고일 2007년 8월 14일

최종접수일 2007년 9월 5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0, No.3, 2007(281~303)

The change of the mainbank relationships of SMEs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Incheon-Kyunggi and Daejeon-Chungnam regions

Jin Bae Choi*, Tae Hun Kim**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mainbank relationships of SMEs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Incheon-Kyunggi and Daejeon-Chungnam regions where local banks have been merged by national bank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ational banks(except Industrial Bank of Korea and Kookmin bank) are reluctant to be mainbanks of regional SMEs. Second, those firms which have mainbank relationships with national banks borrow from relatively large number of banks. Third, their size measured by employees are relatively large. These tendencies become clearer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It is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and Kookmin bank that play important roles as mainbanks of regional SMEs. National banks including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and Kookmin bank cannot be relationship lenders to SMEs due to the Williamson-type organizational diseconomies. It means that to ease the regional financial problems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expected to play more active roles.

Keywords: regional finance, mainbank, organizational diseconomies,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 Professor, Department of Digital Business, Kyungsung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Digital Business, Kyungsung University.